

# The JoongAng

Opinion : 이은주의 아트&디자인

## 흑인 사진가 제임스 바너의 시선

중앙일보 | 입력 2022.04.05 00:21 업데이트 2022.04.05 10:25

지면보기 ①



이은주 기자  
중앙일보 문화선임기자

구독

“야심은 있었지만, 제 사진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영국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자신의 회고전이 열렸을 때, 그는 전시를 기획한 세계적인 큐레이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영국 런던에 이어 벌써 한국 서울에서도 그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삼청동 바라캇컨템포러리에서 아시아 첫 개인전 ‘에버 영(Ever Young)’을 열고 있는 가나 출신의 사진가 제임스 바너(James Barnor-92) 얘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게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제임스 바너의 삶도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평생 사진을 찍어왔지만 78 세에 첫 개인전을 열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90 세에 접어들며 그가 찍은 사진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이미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인형을 업은 소녀, 1972, 디지털 C 프린트, 70x70cm, [사진 바라캇컨템포러리]

전시에선 1950~80 년대에 촬영된 작품 34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작품들이 처음부터 대가의 포스를 뽐내며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웃 사진가가 동네 아이들과 사람들을 편하게 찍은 듯한 사진과 한껏 멋 부리고 포즈를 취한 여인들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속 친근하고, 아름답고, 당당한 주인공들이 모두 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온 흑인들의 이미지와는 다르고, 새롭고, 흥미로운 느낌이 전시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6 년 찍은 '영국 트래펄가 광장에서 에를린 이브렉'과 1974 년 촬영한 '아지프(AGIP)캘린더 모델'은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또 '백인 인형을 업고 있는 흑인 소녀'(1972)는 흑인 작가이기에 포착할 수 있었던 사진 한장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1929 년에 가나 아크라에서 태어난 바너는 60 여 년 동안 인물사진과 저널리즘 사진을 넘나들고, 영국과 가나를 오가며 작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50 년대 후반 가나의 급변하는 사회상을 카메라로 기록했고, 60 년대 영국에 정착한 흑인 공동체들의 모습을 그만의 시선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바너, AGIP 캘린더 모델, 1974, 2022, 람다 프린트, 48 x 48 cm. 사진 바라캇컨템포러리]

바너의 사진들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았던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누가 카메라를 들고, 피사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냥 놔두면 소리 없이 사라졌을 것을 그는 그 자신의 눈으로 주목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통해 인간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을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주목받는 그의 ‘다른’ 사진들이 그 소박한 바람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